

### 이렇게 들었다

#### 공직자

## “벼슬에 있어도 청탁개입 안된다”

고관부인들의 고급옷 로비복, 검찰의 대낮 폭탄주 발언 등 공직자들과 관련된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자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성토가 높다. 정부에서도 이를 계기로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설때 마다 관리직자명, 공무원 윤리강령,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없이 부패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 국민이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들 사건의 파장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불신을 씻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밝은 달은 이저러집이 없어서 허공을 읊아 감에 청정하며 장애없이, 늘 초립자같이 참회하는 마음을 갖출 것이며, 몸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조금도 산란함이 없이 법대로 하여 청정해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 <월유경>

■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잔인하지 않아야 하며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안되느니라. 그러한 마음은 벼슬에는 있을지라도 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벼슬에 있으면서 그러한 다섯가지 마음에 매달리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불नि항경>

■ 신하와 관리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한다. 백성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군인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된다. <중일아함경>

■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챙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충직한 중신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현명한 사람들은 분규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키고, 오직 아침준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직권을 남용해 부정한 수단으로 축재에 몰두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부가 통제력을 잃고, 정당한 정책은 폐허 속에 묻혀 버린다. 그렇게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 청정한 마음은 착한 행위를 하게 하고, 악한 마음은 악한 행위를 하게 한다.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세계가 청정하며,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세계가 더러워지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우리 불법에서는 마음으로 주(主)를 삼는 것이니, 온갖 것이 마음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느니라. <심지관경>

■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물 가름 족중 비 등 기상상황을 알고, 농사의 작황과 풍작을 위한 대책과 백성의 안락과 슬픔을 알고, 공과 죄를 확연히 가려 상과 벌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 현명한 치자는 백성이 곤궁할 때 나누어 주고, 넉넉할 때 거둬들이며,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잘 판단하여 될 수 있는 한 가볍게 한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잘 화합한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 성보박물관을 지으며

### 목.사.리



혜우 선암사 재무국장

지난 3월 선암사 대웅전 후불탱화를 도난당했습니다. 성보를 도난당한 아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뒤에 당한 여러가지 일들입니다. “탱화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요?” “어떻게 문화재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요?” 등등...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앞에 탱화를 모시는 일이 당연한 일이며 가장 귀하게 모시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취급했다고 야단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전문지식없이 비판만 난무한 기사에는 많은 이들이 상처에 대한 배려마저도 없었기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더 슬픈 것은 성보에 관심이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반적인 매도입니다. 수행하는 승려가 수행의 대상에 관심이 없으니 어찌 없는 일입니다. 지금 밖에서 성보박물관 짓는 소음이 들립니다. 그 소음소리가 다른 공사때와는 다르게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제 박물관이 완성되면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세상 고뇌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자유의 문을 열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던 부처님상이나 탱화들을 단지 문화재보존이란 이름으로 제 손으로 유

해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이기에 종교가 우선임을 사람들은 모르거나 봅니다. 우리 불교가 지니고 있는 문화는 종교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 부산물에 불과한 문화재적인 가치로 인하여 종교성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지금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절집문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보여 주는 단절된 문화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생활 문화이며 정신적 외치로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위 의 가치를 오롯이 세울 수 있는 곳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절이란 세상의 어떤 기준도, 어떤 조건도 없이 삶에서 일어난 그 어떤 괴로움도 벗어날 수 있는 곳이며 지친 삶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을 명명해야 합니다. 도난과 훼손의 문제 때문에 오래된 절집마다 성보박물관을 지었거나 현재 짓고 있습니다. 성보를 보존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대안이나 아닐까 싶습니다. 어날 그대가 지친 길목으로 찾아왔을 때 대웅전에서 플라스틱 미소를 띠고있는 부처님이나 사진으로 복사된 불 보살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열린마당

## 새시대 불교포럼 6월포럼 '신지식인운동' 불교적 이해

새시대불교포럼(대표 박승원)은 15일 종단협의회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지식인 운동'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주제로 6월포럼을 개최했다. 신지식인 운동은 국민의 정부가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이다. 이날 포럼은 박승원씨의 주제발표와 2인의 악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신지식인운동은 불교사상에 입각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 불교적 신지식운동으로 전환

### 발제 박승원 (시스텔경영연구소장)

최근 들어 지식의 가치를 논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신지식인의 모험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제위기가 지식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쟁력 약화가 '지식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독주'에 의한 사회적 공정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지식인운동은 지식의 기능적 내지는 결과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지식을 경제적 산출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익혀온 가치관의 연장에 불과하다. 부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심미적이거나 정서적 그리고 감성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근본적으로 문화 사회학 철학 등 인문과학의 괴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 운동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보기에 다소의 무리가 있다.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신지식인운동은 선지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선지식이란 벼로 사귀었던 훌륭한 사람, 즉 스승을 뜻하며 무엇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사이(知人)'에 근거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취주는 유익한 존재로 만나 지식인이 되어 무한한 정보원과의 상호관계속에 파생되어 새로운 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파트너링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지식인운동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이라면 선지식운동은 찾아가는 과정 또는 방법론을 강조하며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여야만 자기계발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선지식인운동을 통해 지식의 독주를 막고 균형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지식은 선지식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 새로운 발상 중시 가치창출

### 홍성범 (제2건국위원회 공보팀장)

신지식인운동의 출발 배경은 지식의 국가의 부와 경쟁력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21세기 선진사회 진입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발전전략과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키위해 신지식인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신지식인운동은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열의 개방 창의 네트워크능력 등 지식의 활용과 일하는 방법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신지식인은 학력을 철폐하여 능력을 우선시하고 도덕적 가치를 가지며 생활현장 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지식인운동은 협의로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실천적 지식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고 광의로는 조직내 구성원이 신지식인화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21세기 지식은 연계망적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파트너링과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선지식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 정보와 지혜 둘다 축적돼야

### 토론 김대근 (한국경제신문 마케팅실장)



대상과 인격체를 상징하는 선지식과 정보 축적된 인간을 통칭하는 신지식은 다른 개념이다. 불교적으로 볼 때 원리와 일치된 지식을 말하는 지혜가 가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사회구조는 노동위주의 산업 농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변천하고 있다. 그런만큼 앎의 힘(知力)이 있어야 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만큼 단순한 물리적 조직적 자본론적인 대응은 곤란하다는 점을 제기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정보력 지식력을 중요시하는 시점에 와 있다. 혼돈의 시대를 거쳐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 연기론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문화력·정신력 시대로 가게 마련이다.

21세가 되면 가치중심과 세계사 축의 변화로 인해 불교적인 사고와 가치가 자연적으로 필요한 때가 인류에게 도래한다.

그런만큼 지혜를 길러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종욱 (취재1부 기자)

최근 연합뉴스의 '석굴암 유물' 관련 보도에 대한 진위를 탐문했던 기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함양군청 등 어느 곳에서도 공개된 유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물 소동'의 발단은 경주 함양에 살고 있는 배근택씨가 15일 석굴암 감실에 있었던 것이라며 유물 73점을 공개하고, 연합뉴스가 이 사실을 보도한 데서 시작했다.

석굴암과 관련된다는 소식에 관계 기자들은 먼저 유물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배씨는 1월부터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함양군청 등에 석굴암 감실 유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요구해온 터라, 이들 기관은 이미 유물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네 기관의 대답이 애매모호했다. "배씨의 주장은 익히 알고 있지만, 군청 공무원이 무엇을 알겠느냐" "관계 학자들이 조용한데 진위 여부가 가려진게 아니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등등. 하나같이 진위를 밝히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더욱이 석굴암 감실 유물이 아니더라도 유물은 '진품'이나 '조각품'은 잘 모르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소장가가 한 학자에게 '진위'를 묻는 것도 아니고, 국내의 유력한 통신사를 통해 공개한 '진위'를 묻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모른다'는 대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경남지역 일간지에서는 배씨의 소식에 관계 기자들은 먼저 유물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배씨는 1월부터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함양군청 등에 석굴암 감실 유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요구해온 터라, 이들 기관은 이미 유물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네 기관의 대답이 애매모호했다. "배씨의 주장은 익히 알고 있지만, 군청 공무원이 무엇을 알겠느냐" "관계 학자들이 조용한데 진위 여부가 가려진게 아니냐" "해당 지자체에

(gobaou@buddhapia.com)

## 각 사암 스님께 드립니다.



윤홍숙 (41세)

윤홍숙 보살은 출가의 뜻이 있어 집을 나가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가를 하겠다 하면 한집안에 출가자가 있다는 것은 크게 복된일이 오니 집안 모두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형제 모두에게 환영과 축복속에 출가를 바라오니 혹 스님들께서 윤홍숙 보살을 아시면 설득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숙 보살님의 출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세간법이 불법이고 불법이 세간법인데 세간을 외면한 불법이란 있을 수 없으니 집에 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모든 형제와 인연있는 분들의 축하 속의 출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 연락처

0351-861-0161 / 011-396-8525 임응순  
02-3480-2184 / 02-956-4014 윤미숙

기막히게 슬프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수안스님 그림에세이

참 좋다. 정말 좋구나

화제만발! 전국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시끄럽다, 먹이나 갈아라!



개구쟁이 화가 수안스님의 재미있고 아름다운, 절판된 에세이 한마당을 속에도 부처가 있다며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쇼핑의 음악을 들으며 아프리카 춤을 추고... 산에 살면서도 산이 그렇다고 고백하는 스님. 스님이 먹이나 갈라 고 외친 진정한 뜻은...



\*컬러그림 57점 수록

부처님 앞에 앉으려는 순진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문턱에 서서 그 길로 걸어가는 구도. 해학의 요소가 어우러진 한국말로 쓴, 눈여겨 보아야 할 것만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한다. 경이로운 난해한 법문이나 불교 용어는 한마디도 쓰지 않고 풀어 놓은 이야기와 그의 삶 자체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감을 담은 서사주의 산문이다. 문체도 세상에 대한 관심은 글 50여 편이 독자들을 감동시킨다. 새해에도 승복의 빛나는 문장을 보는 세도 스님의 문에는 모두가 부처 아무런 구속도 없기에 그의 고백에도 거리가 없다. 용이로 선화의 독한 향기를 개척해 온 저자가 스님으로서의 독특한 삶을 보여주는 개성있는 에세이 100편은 세상을 보듬어 안는 스님의 진솔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림과 서민 지혜의 보살인 문수여는. 해인의 눈이란 뜻이다. 이 글을 하나하나에는 그런 눈길이 느껴진다. 무신앙도 물에 익힌 수도보다는 중생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는 차츰차츰 통해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양반님

386세대에게 바치는 뜨거운 연가 무지렁이를 자처하는 한 농부의 자연사랑 - 인간사랑  
(민통선 사람들)의 작가 임동원 장편소설 앨범  
한글판 266면/8,000원  
4x6판/양장/198면/8,500원  
6x9판/양장/198면/8,500원  
6x9판/양장/198면/8,500원

즐거움 책읽기, 생각하는 책읽기 - 늘푸른소나무 / 전화 (02)2276-0290 / 팩스 (02)2276-0295